

<공개 질의> 1

학과 구조조정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4대 교수회는 ‘소통하는 교수회’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하였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대학의 주요 정보와 전략이 구성원들 간에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교수님들께서 평소 궁금해하시던 내용을 정리하여 본부에 질의하고, 본부의 답변을 교수님들과 공유하는 <공개 질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대학 통합, 5% 모집정지, 신입생 미달사태, 충원을 관리 방안 등 시급하게 질문할 내용이 많지만, 첫 번째 <공개 질의>의 주제는 ‘학과 구조조정’으로 정했습니다.

(질문의 배경)

무엇보다 먼저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본역량진단평가, 국립대육성사업, 혁신지원사업 등의 국책 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대학 본부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작년 입시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경험했습니다. 구성원 모두는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적정 규모화를 자율적으로 추진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26일 열린 교무회의에서는 강제 구조조정 조치 내용이 담긴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혁신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중심에는 충원율이 있습니다. 이에 교수회의 <공개 질의>는 충원율을 높이기 위한 대학 본부의 지난 1년간의 노력에 관해서 질문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질문 내용)

질문드리겠습니다.

▶ (질문 1-1) 큰 폭의 입학자원 감소가 예상된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 본부의 노력이 궁금합니다. 입학본부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입시 업무 이외에, 신입생 충원을 개선을 위해 대학 본부가 추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2) 교수회가 본부에 검토를 요청한 규정 심의 의견에 대해 대학 본부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어야 합니다. 의견의 반영 여부를 떠나서 대학 본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당사자인 교수회에 피드백하지 않는다면 교수회의 심의 절차는 단순한 요식행

위로 전략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교무회의에서 통과된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혁신에 관한 규정>은 2021년 5월 13일 교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당시 교수회는 본 규정 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제11조 (구조개혁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5개 의견에 대한 검토를 대학 본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 본부로부터 이들 의견에 대한 어떠한 검토 결과도 회신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당시 교수회가 제출한 심의 의견을 본부에서 검토했던 과정과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문 1-3)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모집단위조정)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 18명 미만)이거나 (모집단위의 최근 2년 평균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80% 미만)인 경우 모집단위 조정을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과가 몇 개가 되는지와 만약 이들 학과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폐지를 결정할 것인지, 구조조정의 일정표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학 본부와 학과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책임 또한 나눠서 져야 합니다. 신입생 충원을 제고를 위해 학과에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사항을 알려 주시면, 교수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교수회의 <공개 질의>가 구성원 간에 정보가 정확하게 공유되고, 상호 신뢰가 쌓이는 좋은 소통 채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1.11.10.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

교수회 <공개질의>1에 대한 본부 답변

(Q 1-1) 큰 폭의 입학자원 감소가 예상된 올해 입시에서 신입생 미충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 본부의 노력이 궁금합니다. 입학본부에서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해 오던 입시 업무 이외에, 신입생 충원을 개선을 위해 대학 본부가 추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A 1-1) 신입생 미충원은 학생 등록금 감소, 학교 대외평판 악화, 대학재정지원사업 수주 중단초래 등 대학에 직·간접적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에 신입생 미충원 문제 해결을 위해 입학본부 자체로도 고교방문 및 수험생 대상 홍보 매체 신설(YOUTUBE, EBS교재) 등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다만 신입생 충원율은 학령인구 대비 대학입학정원 초과현상, 수험생 수도권 대학 지원 쏠림현상 등 구조적 문제도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협력처에서는 탄력정원제를 도입하여 신입생 충원율이 낮은 학과의 정원을 경쟁력있는 학과로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시도하고 있으며, 학과의 경쟁력이 회복되면 정원을 증원할 수 도 있습니다. 대학 본부는 탄력정원제 실시를 통해 다가오는 2024년 학령인구 급감위기를 헤쳐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Q 1-2) 교수회가 본부에 검토를 요청한 규정 심의 의견에 대해 대학 본부는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어야 합니다. 의견의 반영 여부를 떠나서 대학 본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당사자인 교수회에 피드백하지 않는다면 교수회의 심의 절차는 단순한 요식행위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26일 교무회의에서 통과된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혁신에 관한 규정>은 2021년 5월 13일 교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당시 교수회는 본 규정 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제11조(구조개혁 대상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5개 의견에 대한 검토를 대학 본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 본부로부터 이들 의견에 대한 어떠한 검토 결과도 회신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당시 교수회가 제출한 심의 의견을 본부에서 검토했던 과정과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A 1-2)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혁신에 관한 규정」은 지난 4월 19일 전체 학과 교수 1명씩으로 구성된 학사구조개혁위원회에 심의를 거쳤고, 이후 4월 20일부터 26일까지 학내 구성원 대상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3일 교수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후 입법 예고시 교수회에서 의견 제시한 5개 내용을 검토하였고 규정심의위원회에서 검토의견을 회의자료로 상정하여 10월 20일 와 11월 2일 교무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5월 13일 교수회 심의 이후 후속 절차인 규정심의위원회, 교무회 심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3주기 기본역량진단 결과발표에 따라 교육부 주도의 강제적인 구조조정이 실시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어 역량진단 최종 결과발표 이후로 동 규정

제정 절차를 유보하며 결과를 기다렸고 3주기 기본역량진단 최종통과 통보 이후 관련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이는 5월 13일 교수회 심의 내용으로 진행한 것입니다.

교수회 요청의견은 입법예고시 접수된 검토의견을 기획협력처는 규정심의위원회와 교무회 심의시 검토의견 자료와 함께 상정하여 최종 심의 논의자료로 활용합니다. 교수회에서 요청한 5개 의견은 검토 결과를 회신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교수회의 심의 절차를 요식행위로 생각한 것이 아닌 교수회에서 심의 의결로(전반적 동의) 결과가 회신된 것으로 판단하여 후속 절차를 진행한 것입니다. 한편 규정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수회 소속 위원을 위촉하여 검토의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통상적으로 교수회를 비롯한 교수 개개인이 제출한 의견은 검토 결과를 회신한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교수회에서 요청하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은 그 결과를 교수회에 송부하여 대학본부와 교수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학칙 제28조(교수회) 제5항은 교수회의 심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학칙, 규정, 시행세칙은 심의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강릉원주대학교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9조(심의요청) 제1항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한 학칙, 규정, 시행세칙은 입안부서에서 교수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하고, 교수회 심의 결과를 별지 서식에 작성하여 규정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학칙에 명시한 심의 사항과 규정에서 명시한 심의 요청 사항에 충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현재 필요할 것 같습니다.

(Q 1-3)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 18명 미만이거나 모집단위의 최근 2년 평균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80% 미만인 경우 모집단위 조정을 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폐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시점에서 상기 조건에 해당하는 학과가 몇 개가 되는지와 만약 이들 학과를 폐지하려고 한다면 어떤 기준과 절차를 거쳐 폐지를 결정할 것인지, 구조 조정의 일정표와 함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1-3) 「입학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혁신에 관한 규정」 제1항 제3호에 따라 폐과 대상인 학과는 1개 학과(물리)로 최근 2년 평균 정원 내 재학생 충원율이 68%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이 18명인 독어독문학과는 입학정원이 1명 감축시 폐과 대상으로 진입하게 되며, 제1항 제3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모집단위가 발생하는 경우 학사구조혁신위원회에서 폐과를 심의하고 이후 교무회 심의를 통해 폐과를 확정하게 됩니다. 만약, 학과에서 폐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하며 이때 폐과 재심의 의결은 학사구조혁신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합니다.

교수회 <공개 질의> 1에 대한 대학 본부 답변 전체 교수님과 공유

존경하는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교수님들께 공유해 드렸던 첫 번째 <공개 질의>에 대한 본부의 답변이 도착했습니다.
신속하게 답변을 보내 주신 대학 본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답변 내용으로 볼 때 신입생 충원을 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소 미흡했다는 점
그리고 일부 답변의 경우 질문의 요지에서 벗어난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신입생 미충원 문제는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학과 통폐합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답변에서는 신입생 미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절박함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치밀한 전략도 없었고, 꼭 추진했
어야 할 과업도 소홀히 했습니다.

지난 11월 17일 개최된 제4-2차 교수평의회에서는 <신입생 충원율제고 방안>에 대
해 토의했습니다.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본부에 아래와 같이 촉구하겠습
니다.

<교수회 요청 사항>

1. 충원을 제고를 위한 전략 수립, 핵심과제 도출, 이행 점검을 전담할 총장 직속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2. 학과 필요 예산 및 인력 지원, 학과별 홈페이지 내실화 등을 통해 교육 수요자 입
장에서의 정보 제공 및 관리 강화
3. 대학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더 전략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학 본부와 학과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하고,
책임 또한 나눠서 져야 합니다. 앞으로 교수회는 소통은 물론 대안 제시를 통해
대학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1.11.22.

강릉원주대학교 교수회